주체성과 민족성의 고수와 동남아시아의 번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정치학 박사학위론문)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위원장 쏭치트 풀랍

오늘의 시대는 자주력량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치렬한 대결이 벌어지고있는 시대이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은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자기가 선택한 길로 꿋꿋이 나가고있다. 하지만 강권과 전횡,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제국주의는 인민대중의 전진을 가로막고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악랄하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맞게 자주를 지향하는 인민들이 번영을 이룩하자면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현시기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나아갈 앞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고있다. 그리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에 관한 문제를 종자로 하여 박사학위론문을 쓸 생각을 가지고 조선사회과학자협회에 제기하였다.

론문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 주체성과 민족성에 대하여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하자는것이다.

인민들의 참다운 삶과 행복이 꽃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이 어떻게 구현되고있는가를 연구하자는것이다.

동남아시아나라들에서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측면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에 대하여 연구하자는것이다.

론문의 장 절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에 대한 일반적리해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민족과 국가를 단위로 하여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새 사회건설을 벌려나가는 현시대에 주체성을 고수하고 민족성을 살리기 위한 매개 나라와 민족의 과업은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시여 새 사회건설을 성과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시대의 요구와 인류의 지향에 맞게 새 사회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97 년 6 월 19 일 불후의 고전적 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주체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운명과 인민대중의 운명을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간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심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기인민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이다.

민족성을 살린다는것은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자기 민족의 사상감정과 우수한 기질, 전통을 지키고 살려나간다는것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는것은 국제적인 정의를 유린하는 행위가 우심하게 감행되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기 위한 절실한 문제로 된다.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완전한 평등과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가장 큰 우려를 자아내는것은 《민주주의》와 《반테로전》, 《인권옹호》와 《세계화》를 구실로 감행되는 지배주의적책동이다. 현대력사에 오늘과 같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지배하고 예속시키기 위한 책동이 로골적으로 감행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힘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억누르려는 제국주의자들과는 힘으로 맞서야 한다. 작은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비상한 각오와 견인불발의 의지를 가지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해나간다면 전민족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동원하여 얼마든지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짓부실수 있는 강력한 국력을 마련할수 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굳건히 고수해나간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 강권과 전횡은 어디에도 통하지 않게 될것이며 우리 행성에는 사회적정의와 민족적평등, 평화와 안정이 깃들게 될것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민족의 존재와 번영의 귀중한 밑천이다.

세계의 어느 민족이든지 오랜 력사적과정에 형성된 고유한 민족성을 잃으면 자기의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으며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없다. 현시기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화가 추진됨에 따라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다방면적인 련계와 교류가 활발해지고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련계가 깊어지고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

는것은 필연적이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인류가 창조한 과학기술적성과와 경험, 경제문화적재부를 공동으로 향유하고 호상협조하면서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고유한 민족성을 저버리고 자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는 《세계화》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다. 《세계화》는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기 위한 기본전략의 하나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일체화》가 인류사회발전의 필연적결과인듯이 묘사하고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조건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세계의 《일체화》란 있을수 없다. 《세계화》의 파국적후과는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간섭에 굴복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방식을 끌어들인 나라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민족성이 점차 사라져가고 사람들이 민족의 얼을 잃은 정신적불구자로 전락되고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인민이라면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에 맞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제 2 장에서는 주체성과 민족성고수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의 근본담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의 근본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켜나갈수 있게 하는 사활적인 문제이기때문이다.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리익을 지켜나가자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를 자기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자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수출할수도 없고 수입할수도 없다.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주인은 매개 나라

인민들자신이며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문제를 자신이 결정하고 처리하는것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권리이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키자면 언제나 자기식의 방법과 방도를 찾고 그에 의거해야 한다. 자기식의 방법과 방도를 탐구하고 구현하는것이 곧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다. 새 사회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갈 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운명과 인민대중의 운명을 독자적인 주견과 신념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뿐아니라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자기의 주견과 신념을 내세우지 못하면 기필코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의사를 따르고 비위를 맞추는데로 나가지 않을수 없으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파국과 파멸에로 이끌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것이 력사와 현실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의 근본담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사활적인 문제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다. 인민대중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일체화》, 《국제화》를 주장하는것은 전세계를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사상과 제도를 초월한 국경도 주체성도 민족성도 없는 《자유세계》로 만들어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저들에게 예속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들은 마치도 《세계화》가 《발전과 번영》의 《만능의 열쇠》인듯이 미화분식하며 요란하게 떠들고있다. 제국주의

자들이 《세계화》의 명목밑에 벌려놓은 《정치적다원주의》, 《경제의 자유화》, 《문화의 개방》을 받아들인 일부 나라들에서는 정치적혼란과 경제적파탄과 예속, 민족문화와 풍습의 말살이라는 비참한 현실이 초래되였다. 결국 《세계화》를 통하여 리득을 본것은 제국주의자들뿐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들에서는 민족 및 종족들사이, 여러 정치세력들사이에 모순과 대립, 분쟁이 격화되고 정치적위기와 무질서가 조성되여 인민대중에게는 빈궁만이 차례지고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번영의 근본담보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생명선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지 않고서는 나라와 민족이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없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전진할수도 승리할수도 없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의 근본담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세계진보적인민들사이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정의와 인류의 진보와 관련된 문제로서 세계진보적인민들사이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세계진보적인민들사이의 단결과 련대성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관계이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이 서로 지지성원하며 긴밀히 협조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책동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으며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가운데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도 있고 발전된 민족과 덜 발전된 민족도 있다. 나라와 민족마다 력사와 문화전통, 생활방식 등에서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평등하며 꼭같은 자주적권리를 가지고있다. 참다운 국제적관계는 자주성에 기초한 단결과 협조이며 이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때에만 이룩될수 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며 자기의 고유하고 우수한 민족적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사회생활에 구현해나가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의 평등하고 자주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만 단결과 련대성이 공고하고 진실한것으로 될수 있다.

제 3 장에서는 조선은 주체성과 민족성고수의 본보기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실천에서 과시된다. 실천을 떠난 사상과 리론, 실천에 복무하지 않는 사상과 리론은 무의미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조선은 주체성이 강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 민족성이 높이 발양되는 애국애족의 사회주의국가,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세상에 그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력사는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비상히 강화해오신 성스러운 력사로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견지하고계신다.

조선의 경험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 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하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진보적인민들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려면 조선을 따라배워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 1 절에서는 조선이 주체성이 강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라는데 해설하였다.

(1)에서는 조선이 자주의 국가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자주정치는 자기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는 정치이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이다. 자주정치는 밖으로는 외세에 의존하거나 추종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고수하고 안으로는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첫자리에 놓는 정치이다.

조선에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 자기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견결히 옹호하고있다.

자기 나라와 자기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옹호하지 않는다면 남의 지시나 장단에 놀아나게 되며 결국은 새 사회건설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 없고 나중에는 망하게 된다.

조선에서는 자기 나라와 자기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며 그것을 실현하는데로 지향되게 하는 정치,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존엄을 고수하는데서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공갈, 회유에도 굽어들거나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정치를 실시하고있다. 그리고 자기 나라와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견결히 옹호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철저히 옹호되고 실현되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다음으로 모든 문제를 자기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참다운 정치는 새 사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그것은 나라마다 자기의 특성이 있고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생활감정과 풍습이 서로 다른것과 관련된다.

조선에서는 자기 나라의 주객관적조건을 잘 타산하고 그에 맞게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기성리론이나 남의 경험도 창조적으로 대하며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원리들과 방도들을 적극 탐구하여 적용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다음으로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고있다.

새 사회건설은 어렵고 방대한 사업이며 그 누가 요구하고 지향한다고 하여 저절로 실현될수 없고 누가 대신해주는것도 아니다. 오직 자기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수행해나갈 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남의 힘을 바라고 그에 의존하는것은 결국 예속이고 망국이다.

조선에서는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 새 사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인민의 힘과 지혜, 자기의 기술과 자원으로 새 사회건설을 해나가고있다.

조선에서는 다음으로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고있다.

국가의 자주권은 결국 대외관계에서 표현된다. 대외적으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것은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자주권은 모든 나라의 신성한 권리이다. 지금 세계에는 200여개의 나라들이 있다. 그중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와 뒤떨어진 나라가 있다. 그러나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지배하는 나라와 지배받는 나라란 있을수 없다. 모든 나라는 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다. 그 누구도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또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에서는 나라들사이의 특권을 반대하고 령토완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2)에서는 조선이 자립의 국가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고있는 나라라는것은 경제가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건설되고 발전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자기 힘에 의거하여 자기식으로 건설된 경제,

남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를 가진 나라이다.

조선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있다.

자력갱생이란 문자그대로의 의미는 자기 힘으로 일떠선다는것이다. 자기 힘을 믿고 이악하게 투쟁하면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립경제를 건설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이다. 조선인민은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철저히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밀고나가고있다.

조선에서는 다음으로 경제의 부문구조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완비하고있다.

경제의 부문구조가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완비된 나라라는것은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중공업제품과 경공업제품,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원료생산으로부터 완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을 자기 나라안에서 완결할수 있는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라는것을 의미한다. 경제의 부문구조가 완비된 나라는 나라의 경제가 수익성본위가 아니라 경제적자립과 전망적인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갖추어진 나라이다.

조선에서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전후 그처럼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경제를 불과 2~3

년사이에 복구하였으며 남들이 옹근 한세기 지어 수세기에 걸쳐 수행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제를 불과 14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다음으로 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화된 기술로 장비하고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토대우에서 진행하고있다.

경제가 현대화된 나라는 모든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 자동화, 콤퓨터화, 로보트화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높은 수준에 도달한 나라이다. 경제가 과학화된 나라는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생산에 도입될수 있도록 기술공학이 고도로 발전된 경제를 가진 나라이다. 그리고 경제의 모든 부문의 경영활동에서 실리가 철저히 보장되여 경제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되는 나라이다.

현시기 조선에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에서는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고있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의 길을 열고 과학기술로 경제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방안과 실행대책을 명확히 세우고 집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는데서 과학기술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다음으로 자체의 튼튼한 원료, 연료, 동력기지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있다.

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 동력을 자체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여서는 경제의 자립을 보장할수 없으며 민족경제를 안전하게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이것은 결국 자기 나라 경제의 명줄을 남에게 거는것과 같은것이다. 원료와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말려들지 않을수 없게 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관련하여 정확히 리해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이 국제적인 경제협조와 모순되지 않는다는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지 않는다.

매개 나라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그에 기초하여 평등한 립장에서 경제협조를 진행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길, 바로 이 길만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 어떤 경제적지배와 예속에 구애됨이 없이 부강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이다.

(3)에서는 조선이 자위의 국가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자위군사강국의 건설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이다.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옳은 길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 해방전쟁으로 맞서고 반동들의 반혁명적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맞설수 있는 자위군사강국을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군대를 가지고있다.

군사력에서 기본은 군인대중과 전투기술기재로 이루어지는 군대이다.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군대가 있어야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지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정치사상적우월성은 조선인민군의 본질적우월성이며 그 어떤 침략자도 때려부시고 승리를 쟁취할수 있게 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조선인민의 항일혁명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을 비롯한 혁명전쟁의 력사는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군대는 수적,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적과 싸워 능히 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조선인민군은 모든 군인들이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 그 어떤 대적과도 당당히 맞설수 있는 혁명강군으로 자라나게 되

였다. 조선에서는 현대전의 특성과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자기식의 독특한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군대의 군사기술적준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인민군대는 자체의 튼튼한 국방공업에 의거한 현대적인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장비되였으며 원쑤들을 단매에 소멸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조선에서는 다음으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확립하고있다.

현대전쟁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으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전면적이고 립체적인 전쟁이다. 그렇기때문에 정규무력을 강화할뿐아니라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에 방위시설을 튼튼히 꾸리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국요새화는 전선과 후방, 해안연선과 내륙지대 할것없이 모든 지역과 지대들이 요새화되고 모든 진지들이 현대전의 요구와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게 작전전술적으로 튼튼히 꾸려진것이다. 오늘 조선은 모든 지역과 지대들이 요새화되고 모든 진지들이 현대전의 요구와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게 튼튼히 꾸려졌다.

전민무장화는 혁명무력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이 하나의 군사적힘으로 조직화된 방위체계를 이룬다는것이다. 조선에서는 군사가 전국가적, 전인민적사업으로 전환되고 전체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움으로써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다른 손에는 총을 들고 일단적들이 덤벼들면 도처에서 침략자들을 소멸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에서는 다음으로 자체의 국방공업을 믿음직하게 발전시키고있다.

자체의 국방공업이 있어야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생산하여 군대와 전체 인민을 무장시킬수 있다. 국방공업을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무장을 필요한 시기에 요구되는 수량만큼 장비할수 없으며 설사 장비한다고 하여도 무장력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수 없다.

조선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자체의 국방공업발전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왔다. 그리하여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강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추어놓았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바란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의 근본담보는 바로 자위적국방력에 있다.

제 2 절에서는 조선이 민족성이 높이 발양되는 애국애족의 사회주의국가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조선은 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는 애국애족의 사회주의국가이다.

누구든지 자기 조국, 자기 민족에 대한 높은 긍지를 가지지 못하면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 민족제일주의정신은 민족자주정신, 애국애족의 정신의 가장 높은 발현으로 되며 이 정신을 구현한 사회를 애국애족의 사회라고 말할수 있다.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낳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주는 령도자의 위대성이며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지도사상의 위대성, 민족이 살고있는 사회제도의 우월성이다. 예로부터 남달리 우수한 민족성을 빛내여온 조선민족이 오늘에 와서 참다운 제일주의정신을 가지게 된것은 바로 이러한 제반 조건들이 전면적으로 갖추어졌기때문이다.

조선인민은 온 세계 인민들이 한결같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칭송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있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있으며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가지고있다.

민족의 령도자는 민족의 운명을 옹호하고 이끌어주는 태양이며 민족적단결의 중심이다. 령도자에 의하여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가 종합되고 하나로 통일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이 통일

적으로 령도되게 된다. 민족의 흥망성쇠는 결국 령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으며 민족의 가장 큰 행복은 걸출한 민족의 영웅,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는데 있다.

조선에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우수성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문화전통이 적극 구현되고있으며 민족성과 배치되는 그 어떤 사소한 요소도 철저히 배격되고있다. 조선에서는 력사적으로 형성된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민족의 우수성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오늘의 세계를 놓고보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처럼 자기 사상, 자기 제도, 자기 위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민족, 사회주의조선처럼 민족제일주의정신이 온 사회에 나래치고 이 정신으로 민족의 존엄을 떨치는 나라가 없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민족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치게 하는 강력한 추동력이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고있다. 불과 몇년사이에 기념비적창조물들과 현대적인 거리들이 솟아나고 도처에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이 일떠서며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첨단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이것은 민족의 슬기를 떨치려는 비상한 각오로 분발하고 또 분발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끝까지 고수하게 하는 필승의 보검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에는 민족의 존엄을 지켜 사생결단하여 싸워나가는 강의한 의지와 그 어떤 압력에도 머리를 숙일줄 모르는 확고한 주대, 세계의 초대강국도 내려다보는 만만한 투지가 맥박치고있다.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나라가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조선인민의 강한 민족적자존심의 발현으로 된다.

세계의 정치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조선은 끄떡없다.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감히 조선을 건드리지 못할것이며 조선은 멀지 않아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높이 떨치게 될것이다.

제 3 절에서는 조선이 주체성과 민족성이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1)에서는 조선이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국가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모든것을 자기의 리익에 맞게 자신의 힘으로 처리해나간다는것이다.

조선에서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정권의 주인으로 되여 모든 사회생활을 진행해나가고있다. 당과 국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사상이 되고 로선과 정책이 된다는 관점과 태도로부터 언제나 인민들의 소박한 생각과 의사를 반영하여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있다.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는 조선에서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나가면서 그것이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인민이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당조직을 비롯한 정치조직들에 망라되여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며 정치조직을 통하여 그것을 실현해나간다. 조선에서 정치조직들의 활동은 철저히 인민대중의 의사와 념원,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복종되고있다.

조선에서는 다음으로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을 비롯한 사회적재부와 경제관리의 주인으로 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 경제를 자기 리익에 맞게 발전시키고 관리운영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자기가 창조한

물질적부를 향유하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향유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이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와 자신을 위한 창조적로동에 참가하고있으며 로동의 결과에 따라 분배를 받고있다.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높은 자각성과 창조적열의에 의하여 인민들의 물질생활이 나날이 향상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비약의 나래가 펼쳐지고있는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다.

(2)에서는 조선이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국가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은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데 복종된다는것이다.

조선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는데 복종되고있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조선에서 국가는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사회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주고있다.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관리와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여 정치조직생활을 할수 있는 법률적, 사회적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주고있다.

조선에서는 다음으로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데 복종되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사회와 자기자신을 위한 창조적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일할 권리와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주며 그들이 일한 결과에 따라 분배를 정확히 받을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나가고있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창조한 물질적부가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그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고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제, 사회보험제, 정휴양제 등 국가적 및 사회적부담에 의

한 인민적시책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보살핌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있다.

국가는 거리를 하나 형성하여도 인민을 중심에 놓고 인민의 리익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건설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 도시들에는 은행이나 호텔, 여러가지 유흥장들을 중심에 꾸려놓고 돈많은 사람들만 풍청거리지만 조선에서는 도시의 중심에 인민들이 사는 고층살림집들과 상점, 편의봉사기관들을 배치하고있다.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조선인민은 국가로부터 알고 받는 사랑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은 행복한 인민이다.

(3)에서는 조선이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국가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조선에서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하여 사회가 발전하고있다.

조선에서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있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높여나가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게 된다.

조선에서는 다음으로 인민대중의 단결과 협력에 의하여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이 굳게 단결하여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일한다는데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이 조선의 참모습이다.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친어버이로 모시고 받들며 당의 품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다. 전체 인민이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10 년을 1 년으

로 주름잡으며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리는 조선에서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신비로운 속도로 강산이 변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비롯한 앞길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이 산산이 부서져나가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자력자강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르고있는 조선의 현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눈부시게 비약하는 조선의 기상은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고있다.

제 4 장에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의 견지에서 본 동남아시아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동남아시아는 아시아대륙의 남동쪽에 뻗어있는 인도지나반도와 그 앞바다에 널려있는 말라이제도를 포괄하는 지역을 말한다. 면적은 약 450만 k㎡, 인구는 5억명이며 N 23˚로부터 S 10˚까지, E 92˚로부터 132˚까지사이에 놓여있다. 동남아시아에는 타이, 윁남, 라오스, 캄보쟈, 만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부띠모르, 브루네이가 속한다.

오늘 동남아시아는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나서고있으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하여 힘쓰고있다. 동남아시아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다. 동남아시아는 국제무대에서 무시할수 없는 력량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배와 예속, 간섭과 략탈, 침략과 침투책동을 강화하고있다. 지난 세기에 이어 현세기에도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동남아시아는 정치, 경제, 사상문화, 군사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도전에 부닥치고있으며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난관과 시련을 겪고있다.

현실은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해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는데 있

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 1 절에서는 동남아시아의 력사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력사는 자연과 사회의 모든 사물현상이 시간적으로 지나온 과정 또는 그에 관한 기록을 의미한다. 력사를 잘 알아야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옳바로 해결하고 미래를 훌륭히 개척해나갈수 있다.

동남아시아는 일찌기 유럽의 침략과 략탈을 받아왔다. 1496년 뽀르뚜갈은 인도네시아에 침입하여 정향을 비롯한 향료의 무역을 독점하였고 1511년에는 말라이반도의 말라까지역을 강점하고 말라까해협의 해상운수권을 틀어쥐였다. 네데를란드는 16세기말부터 인도네시아에 대대적으로 기여들기 시작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동남아시아에서 선행침략자들의 세력을 몰아내면서 저들의 지배권을 넓혀나갔다. 영국은 말라이, 먄마, 타이의 남부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프랑스는 18세기 말부터 동남아시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여 1862년에는 웰남을, 1863년에는 캄보쟈를, 그후에는 라오스를 강점하고 1893년에는 이 나라들로 《프랑스령 인도지나련방》을 조작하여 이 지역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강화하였다. 이리하여 동남아시아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거의 전 지역이 유럽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식민지분할에 나섰다. 일본은 제 2 차세계대전기간 동남아시아에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가혹한 착취와 략탈이 강화되자 동남아시아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나섰다. 웰남인민들은 1945년 8월 전국적인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하노이시를 해방하였으며 웰남민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라오스, 캄보쟈, 먄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도 무장투쟁을 비롯한 대중적인 반제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제2차세계대전기간 동남아시아를 강점하였던 일본이 패망하자 제국주의자들이 또다시 기여들어 동남아시아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아

나섰다.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은 8년간의 항전을 통하여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1954년에 정전을 실현하였다. 웰남, 라오스, 캄보쟈가 침략자를 반대하는 전쟁을 하였다. 웰남인민은 장기간에 걸치는 반제구국투쟁끝에 1975년 남부웰남 전지역을 해방하였고 1976년에는 통일된 웰남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라오스인민도 1975년 군주제를 페지하고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나라의 통일독립을 실현하였다. 또한 캄보쟈인민은 5년간의 구국항전을 승리로 결속짓고 1976년 새 민주주의캄보쟈를 선포하였다.

제2절에서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 침략과 침투책동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1)에서는 정치분야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책동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안나라들을 둘러싸고 세력권쟁탈전을 벌리며 정치적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있다. 랭전시기에는 동남아시아나라들과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지역내 나라들사이에 정치군사적대립관계를 조장해왔다. 랭전종식후에는 동아시아나라들은 물론 태평양을 끼고있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까지 망라하는 아페크를 조직하여 아세안의 존재감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현시기 정치분야에서의 《세계화》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광고하며 《다당제》와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동남아시아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있다.

동남아시아인민들의 인간성, 가정, 지역사회, 사회와 문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세계화》는 불균형을 가져오고있으며 빈궁과 실업, 범죄, 소년로동, 마약, 에이즈, 환경문제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산생시키고있다.

(2)에서는 경제분야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예속과 략탈책동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1990년대 중엽 동남아시아나라들에서는 발생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장성이 떨어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조성됨으로써 엄중한 시련을 겪었다. 지난 시기《아시아의 기적》이라고까지 불리우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온 동남아시아나라들은 1990년대 중엽에 통화금융위기를 겪었다. 1997년 7월초 타이에서 화페의 대폭적인 평가인하로부터 시작된 통화금융위기는 다른 동남아시아나라들에도 급속히 파급되였다. 1997년 7월이후 동남아시아나라들의 화페가치는 약 30～50%나 떨어졌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막대한 부동산융자가 당장 상환될 전망이 없는 불량채권으로 되고말았다.

동남아시아나라들의 통화, 금융위기는 지역의 사회경제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통화금융분야를 외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실시한 결과에 초래된 필연적산물이였다.

동남아시아나라들에서 일어난 심각한 통화금융위기는 이 지역 나라들의 경제와 인민생활에 커다란 후과를 미치였다. 통화, 금융위기로 수많은 나라들에서 국가예산을 축소하고 대규모항목의 건설을 중지하게 되였으며 예산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많은 중소기업, 지어는 대기업들도 페업 또는 통합되게 되였으며 거리에는 실업자가 차고넘치게 되였다.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낮아져 근로자들의 생활처지가 더욱 어렵게 되였다.

동남아시아지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된 책임은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제국주의자들에게 있다.

동남아시아금융위기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과 인민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교훈은 우선 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교훈은 또한 외세에 대한 의존을 배격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이다.

(3)에서는 군사분야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하여 해설

하였다.

한때 동남아시아지역에는 제국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인 동남아시아조약기구 (쎄아토)가 조직되였었다. 동남아시아조약기구 (쎄아토)는 나토, 쎈토와 함께 제국주의자들의 전략실현의 한 도구였다. 1954년 9월 8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체결된 《동남아시아집단방위조약》에 따라 꾸며졌다. 기구는 나토와는 달리 통합사령부를 두지 않았다.

기구안에서는 행동통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파키스탄은 1972년 7월 14일 정식으로 탈퇴하였으며 프랑스는 1974년 6월이후부터 재정적부담에서 빠져나왔다. 그후 련이어 다른 나라들이 떨어져나와 기구는 자기 사명을 할수 없게 되였으며1977년 5월 30일에 종말을 고하고말았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동남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을 부단히 모색하여왔고 아시안의 일부 나라들에 저들의 무력을 들이밀었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나라들은 국내의 여러 정치 및 종교세력들의 반정부무장활동으로 하여 나라의 안전이 항시적으로 위협을 받고있어 지역의 안보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있다. 최근년간 인도네시아와 타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극단적인 이슬람교세력들은 서로 련계를 깊이 하면서 반정부무장활동을 강화하고있으며 해적들도 말라까해협연안국들의 령해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강화하여 해상안전을 크게 위협하고있다. 이와 같이 동남아시아지역이 《테로의 온상》으로 되고있는데다 빈번한 폭탄폭발과 인질랍치, 정치소요 등으로 인한 정치적불안정을 이 지역을 《세계적인 투자위협지역》으로 간주되게 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이로부터 아세안성원국들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투자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마련하려는데 중요한 관심을 두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안이 관심하는 《안보능력》개선에 자기가 필요한 존재라는것을 인식시켜 동남아시아나라들이 다른 대국들을 경계배제하고 저들의 군사적협조에 기대를 가지게 만들려는 음흉한 술책을 쓰고

있다.

(4)에서는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침투책동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 인민들속에 반공사상을 불어넣어 그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정신도덕적으로 타락케 만들며 저들의 야망을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동남아시아지역의 전통적인 문화를 파괴하고 저들의 썩어빠진 문화와 퇴폐적인 생활양식을 집요하게 퍼뜨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그들이 퍼뜨리는 사상문화들은 철두철미 극단한 인간증오사상과 개인리기주의, 황금만능주의와 향락주의에 기초를 둔 략탈과 살인, 사기와 협잡, 부화와 방종으로 일관되여있다.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로 인하여 세계에서 이미 사용되던 5 000~7 000개의 언어가운데서 234개의 언어가 이미 사라졌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화》가 계속되면 21세기에는 세계언어의 90%가 완전히 또는 거의 사라지게 될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동남아시아지역의 소수민족들에게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사람들도 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세계화》에 의하여 변화되고있다. 좋은것은 쇠퇴하고 문화의 형식은 소비주의, 물질중심주의, 서방식립장으로 되여가고있으며 자체의존은 점점 더 적어지고 외부요인에 더욱 의존하고있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은 동남아시아인민으로 하여금 새 사회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할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제3절에서는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1)에서는 타이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타이는 동남아시아나라들중에서 령토가 크고 인구수가 많으며 경제

가 발전되여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동남아시아지역과 동남아시아국가련합(아세안),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비교적 높다고 할수 있다. 현시기 타이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에 대처하여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1961년 공업부분의 확대와 세계화된 도시에로의 변화를 전략으로 하는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제1호를 작성한 때로부터 자기 발전을 이룩한 지난 40년간 타이는 경제장성에 커다란 힘을 돌린 반면에 지방의 발전은 무시하여왔다. 불균형적인 발전이 초래된 결과 국내총생산액은 량적측면에서 11~12%의 장성이 이루어진 반면에 그 질적균형은 맞추지 못하였다. 지금 소득에서의 차별과 빈궁, 자연부원의 고갈, 환경의 파괴가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또한 사회에서의 충돌도 격화되였다.

지역화는 기술과 지식을 발전의 기초로 하여 나라를 발전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시도라고 할수 있다. 지역화(전통화)는 자체의 자연부원, 지역문명, 력사에 기초하고있다. 지역화에 기초하여 인간과 사회, 경제와 환경과의 균형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제9호가 제시되였다.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제9호(2001-2005)에는 균형경제(자립경제)에 관한 철학이 담겨져있는것으로 하여 나라를 위기로부터 성공에로 확고히 이끌어왔다. 타이는 경제장성에 중점을 두고 40년이상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자립경제중심의 새로운 리론은 가정체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조직과 같이 집단을 이룸으로써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생산을 확대하게 된다면 이러한 자립경제는 발전할수 있다. 7만 8천개의 지역에 퍼져있는 6만 5천개이상의 그루빠들과 조직들이 지역내 자립경제로 발전하고있으며 지역사회의 협동경제는 지방주의와 지역화에 부합되게 무역경제수준으로발전하고있다. 자립경제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 등 각이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방식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철학의 한 형태이다. 나라의 발전에서 중요한것은 경제발전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

는 《세계화》를 따라앞서는것이다.

자립경제에 관한 철학은 경제에서뿐만아니라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에서 밝혀주는 원칙과 많은 경우에 공통점을 가지고있다. 자립경제철학은 인간의 생활, 생활방식, 사회와 그 내부의 조직을 포괄하는 철학이라고 할수 있다.

자립경제는 생활과 가정, 조직과 사회의 통합의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도로 된다. 사회문화와 자연부원은 새로운 리론이 밝힌 같은 수준 또는 다른 수준에 맞게 모든 수준들을 통합하여 자립하는 기초우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 자립경제에 관한 철학은 현재까지 이어지고있는 지역화의 한 갈래이다.

타이의 한 연구집단은 지난 20년간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사색하였으며 그에 대한 연구사업도 하여왔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제국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세계화》는 타이에 리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것이다. 연구집단은 그 근본요인을 분석하면서 타이에서공동체(지역사회)가 경제에서 자급자족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타이에는 훌륭한 실례가 있다. 지난 세기 90년대말 재정금융분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공격으로 타이의 경제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우리 타이인민앞에는 두 길이 있었다. 하나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를 받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머슴으로 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체의 힘과지혜로 난국을 타개하는것이였다. 타이인민은 두번째 길을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는 재정금융관리체계를 세우고 수출주도형의 경제정책으로부터 내부수요를 자극하고 확대하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날수 있었다.

새 사회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나라의 실정과 구체적형편, 발전의 가능성을 잘 알고있는것은

다름아닌 자기 인민이다. 남의 옷이 자기 몸에 맞을수 없고 어울릴수 없다. 만일 타이가 국제통화기금의 처방을 받아들였다면 사회정치적혼란과 경제적파국은 더 말할것도 없고 인민들은 신탁통치를 받는 식민지노예로 전락되였을것이다.

세계를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이 기승을 부리고있는 지금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자면 새 사회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한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타이에 있어서 그 길밖에는 번영에로 가는 길이 없다. 자기의 실정에 맞는 사상리론을 제시하고 인민을 각성시키며 그들의 정신력을 높이고 그들의 힘을 하나로 뭉치면, 우리의 력사와 문화, 훌륭한 전통을 살리면 타이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2)에서는 다른 동남아시아나라들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지난 세기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세기로 될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것이 현실로 되여가고있다. 지금 동남아시아는 세계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으며 국제정치무대에서도 무시할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나가고있다.

모든 동남아시아나라들은 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21세기 자주위업수행의 년대기에 동남아시아의 자주적발전과 륭성번영을 아로새겨나가야 한다.

동남아시아의 자주적발전과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아세안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동남아시아국가련합 (아세안)은 이미전에 조직되여있던 동남아시아련합 (아사)과 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련합 (마필인도)을 모체로 1967년 8월 8일 타이의 수도 방코크에서 준지역적인 협력기구로 창설되였다. 아세안은 아사의 목적과 마필인도의

정신을 결합시킨 산물이였으며 창설당시 성원국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타이, 필리핀 5개 나라였다. 아세안은 1984년 1월 8일 브루네이를, 1995년 7월 28일 웰남을, 1997년 7월 23일 라오스와 먄마를, 1999년 4월 30일 캄보쟈를 성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동남아시아의 아세안화》, 《아세안의 동남아시아화》를 실현하려던 창설초기의 념원을 실현하였으며 지역적인 협력기구로 발전되였다. 《10개국 대아세안구상》의 실현으로 동남아시아지역의 모든 나라들은 지역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단합하고 협력하는데로 나아가게 되였다. 그리하여 아세안은 10개 나라와 450만 k ㎡의 령토, 5억의 인구, 수천억 US$의 국내총생산액, 수천억 US$의 대외무역총액을 가지게 됨으로써 하나의 대국과 맞먹는 세력으로 되여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아세안은 발전도상나라들로 조직된 준지역적 또는 지역적협력기구들가운데서 가장 성숙된 기구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 경제, 안보 등 전반적분야들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커다란 주목을 끌고있다.

아세안은 평등과 협조의 정신을 가지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성원국들의 경제 및 사회문화발전을 촉진하는것을 주요목적의 하나로 내세우고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것을 기본활동원칙으로 하고있는 기구이다. 아세안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할데 대한 원칙을 대외정책과 대외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제기하게 된것은 아세안나라들 자체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지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할데 대한 아세안의 이 활동원칙은 약소국가와 민족에 대한 강대국들의 지배와 예속, 략탈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하는 현시대의 추세를 반영한것으로서 자주시대의 전진운동을 추동하는데서 긍정적작용을 하고있다.

아세안이 창립선언인 《방코크선언》에서 기구가입자격을 동남아시아나라들에만 국한시키는 조항을 설정하고 이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것은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성원국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려는 공통된 지향과 지역밖의 나라가 참가하게 되는 경우 그 운영이 어려워지게 될수 있다는데로부터이다.

기구창설후 아세안은 내정불간섭, 분쟁의 평화적해결, 평화, 자유, 중립지대창설, 경제적 및 사회적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조직원칙으로 삼고 활동을 진행해오고있다. 아세안의 행동규범으로는 불가침조약과 같은 《동남아시아우호협조조약》(1976년 채택)이나 지역내에서의 핵사용을 금지한 《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1995년 조인, 1997년 발효) 등이 있다. 아세안은 수뇌자회의, 외무상회의, 아세안사무국 등과 같은 직능협조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성원국들사이의 호상관계를 처리하고 각국의 립장을 조절하고있다. 아세안성원국들사이의 경제협조는 주요하게 아세안자유무역지대와 메콩강류역협조, 경제장성3각지대들을 통하여 진행되고있다. 주요한 경제장성3각지대들로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죠호르주, 인도네시아의 리아우군도를 포함하는 아세안남장성3각지대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이 3개국의 유관지역을 포함하는 아세안북장성3각지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네이, 필리핀 4개국의 유관지역을 포함하는 아세안동장성 3각지대가 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아세안성원국들은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자주적인 립장에서 정치, 경제, 무역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의 일체화를 다그치고있다. 아세안은 2004년 11월 29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보다 큰 단결과 경제통합, 사회적진보를 통한 안전하고 힘있는 아세안기구의 촉진》이라는 주제하에 제10차 아세안수뇌자회의를 열고 포괄적인 통합의 실현과 그 강화를 통해 《아세안공동체》를 창설하기 위한 《비엔티안행동계획》에 조인하였다. 《비엔티안행동계획》은 지역적통합을 심화시키며 성원국들 특히 구성원국들과 신성원국들사이의 발전상차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아세안나라들사이에 강화되고있는 정치적단결과 다

방면적인 협조의 움직임들은 앞으로 동남아시아지역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것이며 더욱 뚜렷한 결실을 가져올것이다.

조선은 아세안이 창설되기 이전부터 동남아시아나라들과 대외관계를 발전시켜오고있으며 2000년 7월부터는 아세안지역연단에도 참가하고있다.

모든 동남아시아나라들은 지난 시기의 실천에서 그 진리성이 확증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함으로써 번영하는 새 사회를 일떠세워야 한다.

제5장에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1절에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는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립장을 견지하는것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립장을 지키는것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원칙적문제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기때문이다.

사람들의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집단은 나라와 민족이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다. 나라와 민족이 불행에 처하면 인민대중은 물론, 개별적사람들에게도 불행과 고통이 들씌워지게 되며 나라와 민족이 륭성번영하게 되면 모든 성원들에게도 행복이 차례지게 된다.

조선인민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일본의 식민지통치밑에서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했던 지난날의 력사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륭성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과 동남아시아나라들의 오늘의 현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자 인민대중의 운명이고 개인의 운명이며 개인의 운명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

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자주성의 시대인 우리 시대에 와서 모든 나라와 민족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 하고있다.

새 사회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기 위한 투쟁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 인민이 주인이 되여 자기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척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립장과 자세를 튼튼히 지킬 때에만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려는 확고한 자각과 결심이 생기게 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업을 자신의 위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한몸바쳐 나서게 된다.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립장을 지키는것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원칙적문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전체 인민을 단합시켜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로 일떠세울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전체 인민이 다같이 떨쳐나서야만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는 거창한 위업이다. 인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합치면 못해낼 일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다.

전체 인민을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로 이끌어나가자면 그들을 하나로 단합시킬수 있는 옳바른 사상정신적기초가 있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와 지향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위하는 감정이다.

전체 인민을 다같이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립장에 서게 할 때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묶어세울수 있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립장을 지키는것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원칙적문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제국주의자들의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말살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기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반테로전》, 《인권옹호》와 《세계화》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고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로골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사상감정이 없으면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할수 없을뿐아니라 민족이 이질화되거나 다른 민족에게 동화될수 있다.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립장이 투철하면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사상조류들과 궤변들을 철저히 분쇄할수 있고 새 사회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결히 고수해나갈수 있다.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립장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는것이다.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립장이 부족하면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우수성을 보려고 하지 않으며 허무주의에 빠져 남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대주의와 남의 식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조주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리지 못하고 새 사회건설을 말아먹게 된다. 자기의 운명을 참답게 개척하려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삶의 터전으로, 행복의 보금자리로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여야 하며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데서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찾아야 한다.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립장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그 운명을 책임지는 립장에 서는것이다.

다른 나라와 지역들을 경제적으로 틀어쥐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교

활한 신식민주의적수법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이 수법에 특별히큰 힘을 넣고있다. 동남아시아지역에는 귀중한 자원, 특히 세계의 다른지역에는 없거나 부족한 전략자원들이 풍부하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경제를 추켜세우며 동남아시아지역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틀어쥐기 위한 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되였다.

지금 이 수입하는 11종의 전략자원가운데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의존하는것은 8종이나 된다. 그가운데서 티탄은 수입량의 97%, 석은 82%, 운모는 80%, 게르마니움은 각각 90%이상, 천연고무는 88%이상에 달하고있다. 이러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영원히 틀어쥐기 위하여 이 지역 나라들의 《벗》으로 가장하면서 《원조》와《협조》의 간판밑에 경제에 깊이 침투하는 방법으로 이 나라들의 경제적명맥에 검은 마수를 뻗쳐보려 하고있다. 무역과 직접투자뿐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하여 교활한 방법으로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한 경제적지배권과 통제권을 틀어쥐려 하고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아페크)를 저들이 틀어쥐려 하는것이다.

동남아시아인민은 새 사회건설을 위한 모든 사고와 활동에서 언제나 자기 나라와 민족을 중시하는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또한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수호하고 그 부강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제2절에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는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새 사회건설을 진행하는것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새 사회건설을 하는것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원칙적문제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결심하고 처리해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원래 매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자기 나

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신이 결심하고 처리하는것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권리이다.

자주적권리는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고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에 따라 자기 문제를 자기자신이 결정하고 해결해나가는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 어떠한 인민도 결코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바로 한다고 말할수 없다. 외세에 눌리워 자기의 주견과 신념을 내세우지 못하는것은 곧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이다. 자기의 주견과 신념을 내세우지 못하면 기필코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의사를 따르고 비위를 맞추는데로 나가지 않을수 없으며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파국과 파멸에로 이끌어가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다.

새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인민은 아무리 엄혹한 난관과 시련에 부닥쳐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잃지 말아야 하며 견인불발의 의지와 투쟁으로 자기가 선택한 길, 자주의 길로 변함없이 걸어나가야 한다.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새 사회건설을 하는것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원칙적문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조건에서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매개 민족에게는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있는것만큼 민족성을 무시하여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옳게 실현할수 없다.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새 사회건설을 한다는 의미에는 이러한 력사적조건에 맞게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자기식의 방법과 방도를 찾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나간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새 사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식대로 창조적으로 풀어

나가는 과정은 곧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특성에 맞는 방식을 구현해나가는 과정이다. 새 사회건설을 자기식으로 하는것은 그것을 구체적실정에 맞는 옳은 방식과 방법으로 전진시켜나가는 문제로 될뿐아니라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에서 교조와 도식을 반대하고 모든것을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립장과 태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남의 경험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사회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을 반영한것이다. 거기에는 자기 나라에 필요하고 유익한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것도 있으며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것도 있고 맞지 않는것도 있다. 남의것가운데서 좋은것, 앞선것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거나 기본으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국가사회제도를 관리하고 사회생활을 조직하는데서 《서방식》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식을 구현하여야 한다. 《서방식》을 받아들인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정치정세의 불안정과 민족분쟁, 국내전쟁으로 막심한 피해를 받고있는 현실과 사회경제적난관은 《서방식》이야말로 새 사회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수 없게 하는 마약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지금도 제국주의자들은 사회경제적난관과 민족분쟁을 겪고있는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여 그 무슨 《묘안》과 《처방》을 내놓고 강요하고있다. 이것도 역시 《서방식》을 계속 내려먹여 그들을 더 큰 재난에로 이끌어가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나고있는 《서방식》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사태발전은 새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식으로 새 사회건설을 진행함으로써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해나갈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새 사회건설은 매개 나라의 구체적조건에서 진행된다. 나라마다 력사발전단계와 환경과 조건이 다르며 민족적특성도 서로 같지 않다. 이로부터 모든 나라에 다 들어맞는 유일한 《공식》, 유일적인 《가치관》이란 있을수 없다.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련계와 교류가

밀접해짐에 따라 생활에서 공통성이 늘어나게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주적이며 개성적인 발전을 전제로 한다. 모든 나라들에 다 들어맞는 공식이 있다면 그것은 새 사회건설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진행하는것이다.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새 사회건설을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결정하고 관철하는것이다.

매개 나라 인민은 제국주의자들, 지배주의자들의 압력이 클수록 자기의 주견을 더욱 확고히 내세워야 하며 새 사회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고 난관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앉아 자기의 신념과 자기가 택한 길에서 물러서게 되면 다시 일어설수 없게 된다.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새 사회건설을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새 사회건설에서 언제나 자기식의 방법과 방도를 찾고 그에 의거하는것이다.

새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인민은 국가사회제도를 관리하고 사회생활을 조직하는데서 《식》, 《서방식》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식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동남아시아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절대로 남의 식에 절대로 기대를 걸지 말고 자기식이 제일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새 사회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제3절에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는 자체의 력량을 강화하는것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자체의 력량을 강화하는것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과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힘의 원천으로 되기때문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는 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과 륭성번영에 의하여 담보되고 실현된다. 부강번영하는 나라, 륭성번영하는 민족을 떠나서 자주권과 존엄을 당당하게 행사하고 영예롭게 지켜나가는데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군사적으로 약한 나라가 결코 자기의 독자적인 결심과 주견을 내세울수 없고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작성제시하고 관철할수 없다. 국력이 약한 나라는 필연코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큰 나라의 비위를 맞추게 되며 다른 나라의 지휘봉에 움직이게 되여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지배되고 경제적으로 예속되며 군사적으로 강점당하게 된다. 또한 쇠퇴몰락하는 민족은 민족의 존엄과 넋을 보존할수 없고 기상과 영예를 떨칠수 없으며 다른 민족에 쉽게 동화되고 병합되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과 륭성번영은 자체의 력량에 의하여 실현된다. 자체의 력량은 막강한 국력을 마련하는 직접적담당자이며 믿음직한 토대이다.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실현하며 륭성번영을 이룩하게 하는것은 정치사상적위력, 경제력, 군사력이다. 자체의 력량의 주동적작용과 결정적역할, 강력한 안받침이 없이는 부강과 륭성번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체의 력량을 강화하는것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원칙적문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힘의 원천으로 되기때문이다.

현시기 세계무대에서는 자주력량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대결과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자주적인민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 하는 투쟁은 누가 누구를 하는 첨예한 결사전이며 심각한 힘의 대결이다.

힘이 없으면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정치적지배와 간섭, 경

제적봉쇄와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군사적압력과 위협에 단호히 맞설수 없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할수 없다. 외세의 힘에 눌리워 나라의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민족의 리익을 고수하지 못하는것은 곧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이다.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온갖 지배와 예속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자면 그 실제적담보로 되는 힘, 자체의 력량이 있어야 한다. 자체의 력량이 강한 나라는 쉽게 예속되거나 지배되지 않으며 결코 붕괴되지 않는다.

자체의 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튼튼한 정치적력량을 꾸리는것이다.

자체의 력량을 마련하는데서 기본은 정치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과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정치적력량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자체의 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자기의 경제적, 군사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는것이다.

위력한 경제력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이며 강력한 군사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경제적자립의 군사적담보이다. 자기의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지 못한 인민은 새 사회건설에서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할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에 의거하는 위력한 경제력과 자위적국방력에 기초하고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나갈수 있다.

제4절에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는 자기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것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것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원칙적문제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자주의식의 발현으로 되기때문이다.

새 사회건설에서 주체성을 견지하는것이나 민족성을 살리는것이나 그것은 다같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그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사상의식으로서의 자주의식에 기초하고있다.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자주의식의 발현으로서 그것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의하여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랑의 감정과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나가려는 각오로 굳어지는 사상감정에 바탕을 두고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자랑의 감정과 자기 민족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각오로 표현되는 긍지와 자부심은 필연적으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자신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데로 지향된다. 그러므로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것은 자주의식을 높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요구로 된다. 특히 작고 뒤떨어진 나라들, 지난날 큰 나라들의 지배와 간섭을 많이 받아오고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뿌리깊이 남아있는 나라들에서 자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것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원칙적문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우수성을 체득한데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발현되기때문이다.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자주의식에 기초하여 발현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대상에 대한 오랜 력사적체험을 통하여 체득된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서만 이루어지고 발현된다.

모든 민족에게는 다 자체의 우수성이 있으며 그것을 내세우려는 지향과 요구가 있다. 민족의 우수성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번영을 위

한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되며 끊임없이 발전한다. 세계에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며 민족의 우수성을 거세하려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족의 우수성을 살리고 내세우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민족의 우수성은 력사적으로 형성되여 계승되는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유산과 함께 유산으로 내려오는 민족의 우수성에 기초하여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 창조한 우수성으로 이루어진다.

자기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자주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는것이다.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자주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자주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야 자기 민족에 대한 자랑의 감정도 높일수 있고 자기 민족을 튼튼히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각오도 높일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민족의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에게 있다는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 각오와 의지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 민족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마련해놓은 유산들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을 적극 내세우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자기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민족의 우수성을 옳게 보고 그것을 적극 내세우는것이다.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저절로 높아지는것이 아니다.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적극 내세울 때에만 높아지게 된다. 민족허무주의는 민족의 우수성의 개화발전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이다. 민족의 우수성을 살려나가자면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극복하여야 한다. 복고주의 역시 민족의 우수성을 옳게 살려나갈수 없게 하는 유해로운 경향이다. 복고주의를 허용하게 되면 시대의 발전에 역행하는 낡고 뒤떨어

진것들이 되살아나게 된다. 이로부터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우수성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

제5절에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원칙적문제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고수하기 위한 사활적인 문제이기때문이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은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유린하는 주되는 세력이다. 제국주의는 세상에 태여나서부터 헤아릴수 없는 많은 침략전쟁과 무력간섭을 감행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하여왔다. 제국주의침략세력과는 끝까지 맞서 싸우지 않으면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할수 없으며 자주권을 지키지 못하면 인권도 잃고 생존권도 잃게 된다는것은 지나온 력사는 물론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 엄연한 진리이다.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원칙적문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문제이기때문이다.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와 략탈의 올가미에 얽어매여놓고 끝없는 탐욕적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본성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본성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남을 착취하고 략탈하여 살찌는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수법을 달리하면서 계속 침략과 전쟁, 지배와 략탈에 매여달린다. 특히 오늘날 주요자원지대를 노린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책동이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

번영을 이룩하자면 제국주의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고 언제나 반제자주적립장을 견결히 지키며 제국주의침략세력과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는것이 력사의 심각한 교훈이다.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여 동남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원칙적문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근원이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기본암이다. 침략과 전쟁전략으로 자주력량을 말살하고 세계를 저들이 좌지우지하는 일극세계로 만들려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총적목표이다. 세계도처에서 이 감행하고있는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인류앞에는 새로운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오늘의정세는 평화와 안전을 념원하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사회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단합하여 의 전쟁도발책동을 파탄시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없애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을 가려보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기대를 거는것보다 어리석고 위험한것은 없다. 제국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졌던 나라와 민족들이 당하고있는 비참한 현실을 똑똑히 보고 언제나 반제자주적립장을 견결히 지키며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의 자그마한 요소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공포는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의 다른 표현이다. 제국주의는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니며 자기 시대를 다 산 력사의 퇴물이다. 제국주의와 맞서는것을 두려워하면서 반제투쟁을 포기한다면 언제가도 제국주의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날수 없다. 제국주의의 취약성을 꿰뚫어보고 허장성세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용감히 맞서야 하며 그들의 반동적공세를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하고 교활한 민족말살정책과 그것을 합리화하는 반동리론들을 철저히 분쇄하는것이다.

민족의 주체성을 억제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정책은 오늘 세계의 《일체화》흐름이라는 강도적궤변밑에 새로운 형태를 띠고 펼쳐지고있다. 이로부터 세계의 《일체화》흐름이라는 간판을 걸고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말살정책의 위험성을 똑똑히 보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본성을 가리우고 정당화하는 온갖 반동적사상조류들과 궤변들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여야 한다.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이다.

지배주의, 제국주의세력은 련합된 힘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제국주의렬강은 이전에는 식민지재분할문제를 놓고 서로 상대방을 꺼꾸러뜨리기 위하여 커다란 힘을 소모하였다면 지금은 자본주의적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치고있다. 현실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자면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과 인민들이 국제적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주와 정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자주적인 나라들이 서로 지지하고 련대한다면 지배주의, 제국주의세력은 함부로 날뛰지 못할것이다.

동남아시아나라들사이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동남아시아나라들은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동남아시아인민의 지향과 요구, 동남아시아지역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동남아시아나라들은 자주성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국제사회를 민주

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동남아시아나라들은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동남아시아인민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과 힘을 합쳐 자주와 정의의 길로 힘차게 나가야 한다.

맺는말에서 동남아시아인민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여 지역의 번영을 이룩하며 인류의 정의와 진보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